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도, 10년 동안 3조1155억원 투자... 986개소 위험지역 해소

전북도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제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결과, 2029년까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감사업 추진 등에 3조115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종합계획은 2016년 1월부터 시군 협의체 회의 3차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2회, 주민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및 행안부 사전협의 등 절차를 거쳐 왔다. 또한, 이 종합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최종 검토를 거쳐 9월 26일 승인하게 된 것이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2020~2029년) 동안 추진되는 계획이며, 14개 시·군이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저감대책사업 1245개소를 기초자

료로 활용하여, 기 추진사업 308개소를 제외하고, 도 차원에서 위험지구 97개소를 45개소로 통합조정 했다.

또한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위험지구 101개소를 추가 발굴해, 총 986개소에 대한 저감대책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재해 분야별로는 하천재해가 494개소로 가장 많은 50.1%이며, 내수재해 148개소, 토사재해 139개소, 사면재해 99개소, 기타재해 90개소, 해안재해 15개소, 비탈재해 1개소로 집계됐다.

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행에는 총 3조 1,15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조 6,404억원으로 54.3% 수준이며, 도비

가 9,548억원, 시군비가 5,203억원이다.

이번회 산정된 도 방재예산은 연평균 955억원으로, 과거 3년간 도 방재예산 집행액 927억원 보다 3%(28억원) 정도 상회하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예방사업 확대 및 도 예산의 증가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저감대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저감사업 시행이 완료되면 도내 재해예방 보호면적이 1만9410ha, 건물보호가 18,174동, 인명보호 효과가 45,581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계획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되며, 도 자연재난과 및 14개 시·군 재난관리 부서 사무실에 도민들에게 30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의원 질의 듣는 조국 장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A형간염 유행 원인 조개젓으로 확인

도내 유통업체 전수조사 실시... 안전성 확인시까지 섭취 중단 권고

전북도 보건당국은 올해 전국적인 에이(A)형간염의 발생 증가 및 유행의 주요 원인이 질병관리본부의 심층 역학조사 결과 오염된 조개젓을 확인하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2019년 전국 에이(A)형간염 신고건수는 1만5189명(9월 21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인 1887명 대비 약 8배 증가했고,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3.4%를 차지하며 전북도도 올해 에이(A)형간염 신고건수는 429명(9월 21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인 126명 대비 3.4배 증가했다.

그동안 도에서는 환자에 대한 격리 치료비 지원과, 접촉자에 대한 예방

접종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접종을 권고했으며, 조개젓 섭취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해당업체의 조개젓을 수거해 검사한 바 있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에이(A)형간염 발생증가 원인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해 에이(A)형간염 유행의 주요 원인이 조개젓임을 확인 발표했다.

8월까지 확인된 에이(A)형간염 집단발생 26건 조사결과 21건(80.7%)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됐고, 수거가 가능한 18건의 조개젓 검사결과 11건(61.1%)에서 에이(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며, 이중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5건은 환자에

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같은 근연관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조개젓 유통업체도 27개소 41개 품목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보건당국은 "올해 에이(A)형간염 유행은 조개젓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환자와 접촉 후 추가 발생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에이(A)형간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도민들이 준수해야 할 에이(A)형간염 예방수칙을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아울러 오염된 조개젓 제품 정보(9월 4일 기준 4종)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탈(www.cdc.go.kr/npt)을 통해 A형간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렸다. /김진성 기자

재경전북도민회, 임원 대상 도정설명회 개최

최근 전북도는 광주·전남 중심의 호남향우회에서 분리된 '전북도민회' 신규 발족 등 전북 뭍 찾기 운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호남향우회에 예측되어 사회, 경제, 정치 전 분야에 걸쳐 고착화된 굴레에서 벗어나, 350만 전북 출향민들의 새로운 구심점 구축과 결속력 강화를 위한 전북애향운동의 일환으로, (사)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재경전북도민회 임원 120여명을 초청해 도정설명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경기 향우회

임원과 단체 대표, 우범기 정무부지사, 송성환 전라북도회의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도정설명 및 주요산업시설 시찰 등이 진행됐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인사말에서 "2023 새만큼 세계잡버리 유치를 비롯한 도정 핵심 시책들의 완성도를 차근차근 높여 응시의 천년으로 나갈 대도와의 기반을 탄탄히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재경전북도민들께서 변화하는 전북의 발전을 직접 체험하길 바라며, 현재 사는 지역에서 고향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같은 고향 사람끼리 만나 친목을 나누며 고향발전을 염원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 회장은 "향우들이 타지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을 생각하며 전북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향도민들은 이날 익산 보석박물관과 (주)하림 등 도내 주요산업현장을 둘러보며 변화하는 전북의 모습을 보며 애郷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서비스 구축사업 착수

전북도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70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9월 26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는 도 및 시군 10개기관 26개 공공시설에 대하여 법정요금 감면 대상자가

사전에 자격 확인 동의만 하면 공공시설 이용 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해당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했는데 본서비스가 실시되면 해당 증명서 제출 없이 본인신분 확인만으로 즉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대상시설 감면이용자들이 연간 40만 명에 이르렀으나 감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한 도민들이 본 시스템구축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도민들이 시스템 이용에 좀 더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착수보고회의 시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연말까지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신인 뮤지션들의 음악시장 진출을 응원합니다"

전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 사업 추진 박차

전북도와 (재)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도내 대중음악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사업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라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 운영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와 콘진은 전북도 대중음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부터 3년간 약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앞 부지에 레드콘 음악창작소를 구축하고, 매년 뮤지션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올해 레드콘 음악창작소는 지난 4월 공개오디션 '빨간 마이크'를 통해 총 5팀의 제3기 뮤지션을 선발했고, 세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제 시장에서 첫 걸음을 내서는 신인 뮤지션들에게 성장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발굴된 신인 뮤지션들은 먼저 전문가 멘토링을 받아 음원 프로듀싱, 유통, 영상제작 및 공연 기획 등 자신이 꼭 필요한 분야에 기본적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뮤지션들이 직접 제작한 원석단계의 창작곡을 편곡,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을 통해 정식 음원 및 음반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향후 공연 등 무대 참가기회도 지원받아 수익창출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레드콘 3기 뮤지션들의 탐방 컨셉을 살려 기획 라이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레드콘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 및 국내 유수 음악전문 플랫폼 공식 채널을 통해 홍보 및 배포해 대중에 대한 인지도 높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레드콘 뮤지션들의 창작곡으로 제작된 음원·음반을 멜론, 벅스, 지니, 애플뮤직 등 국내외 주요 온라인 음원 플랫폼을 통해 그들의 음악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무대경험이 적은 신인인 만큼 각종 정기공연 시장 진출과 연계 참가를 통해 음

악적 경험치와 대중음악 팬들에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레드콘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10. 12, 익산 종합운동장)하여 레드콘 3기 뮤지션 쇼케이스와 인기 인디가수 초청공연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행사의 화제성이 레드콘 뮤지션들의 홍보효과로 이어져 대중 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도민들의 음악 콘텐츠 향유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와 콘진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앞 '빨간 콘테이너'로 통용되는 레드콘 음악창작소의 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3기 뮤지션 뿐 아니라, 전2기 뮤지션들의 녹음실, 연습실 등 인프라 및 장비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들에 대중음악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매주 주말마다 외부 공연장을 활용한 버스킹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필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